



우지연의 글로벌 스토리텔링



미국 4월 PPI 결과, 좋은 건가?

우지연 글로벌 투자전략·시황
02-709-2668 / gyeoni@ds-sec.co.kr

요약

- 미국 4월 PPI 증가율 전월에 이어 둔화 지속, 예상치도 하회. 헤드라인 수치만 갖고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이전 수치(3월)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며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 시사. 기업들의 평가-단가 스프레드 축소로 마진 둔화 우려는 심화

미국 4월 PPI 증가율(Y) 2.4%, 예상(2.5%) 하회

4월 미국 PPI 증가율이 전월대비 둔화됐으며 예상치도 하회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생산자(기업)들의 비용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주고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는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헤드라인 수치만으로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 큰 폭으로 수정된 지난 3월 PPI.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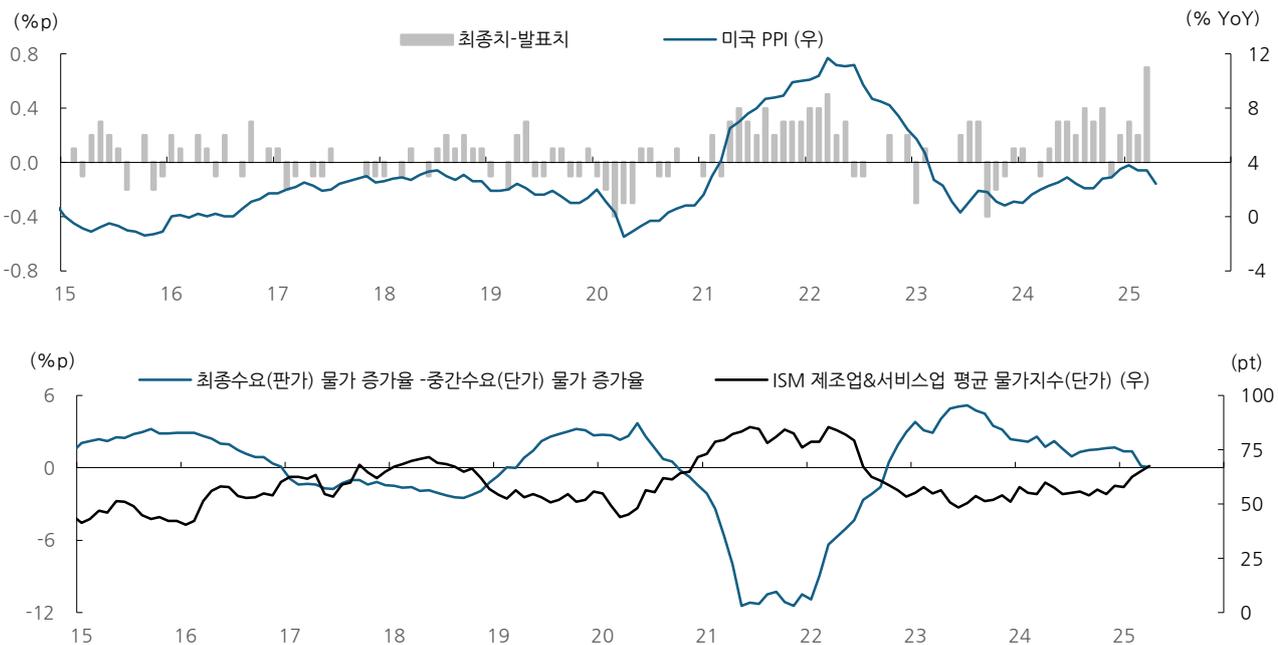
4월 데이터 발표와 함께 3월 PPI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발표치 2.7% → 수정치 3.4%).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뒤늦게 반영된 결과다.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금번 4월 데이터가 향후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현재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높은 국면으로 인식해야 한다. 파월 연준 의장도 15일 컨퍼런스에서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변동성 확대를 경고했다

2) 기업들의 평가 - 단가 ↓ = 마진 둔화 불안 ↑

기업들의 생산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PPI는 기업의 생산 과정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수요 가격(평가)과 중간수요 가격(단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평가-단가 증가율 스프레드는 기업의 가격 전가력을 의미한다. 해당 스프레드가 최근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관세 영향으로 생산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최종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마진 축소 불안은 심화됐다.

향후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 통제(고용 ↓ or 투자 ↓)를 마진 방어에 집중할 것이다. 마진 방어력이 높거나 이와 상관없이 가격 전가력이 우세한 기업의 특징이 하반기주가 차별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 PPI, 인플레이션 변동성 확대와 기업들의 마진 둔화 가능성을 시사



자료: Bloomberg, DS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